

전국의 주소담당자 한자리 모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소정책 구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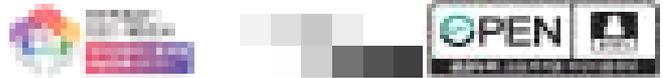
-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‘2023년 주소정책 성과공유 공동연수’ 개최
- 중앙·지자체·전문기관 300여 명 모여 성과 공유하고 2024년 업무 추진방향 논의

- 40대 A씨는 청주 국도에서 운전 중 갑작스럽게 자동차가 멈췄다. 위치 신고를 위해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중 가로등에 설치된 기초번호판을 보고 112에 도움을 청했다. “여기 중부로 1310입니다. 빨리 와주세요” 올해 10월부터 기초번호, 사물주소 등 주소정보를 활용한 위치신고가 가능해졌기에 경찰이 기초번호판을 조회해 신고자 위치를 파악하고 신속히 출동할 수 있었다.
- 안전하고 편리한 주소정책과 주소를 자원으로 미래산업 창출을 고민하는 전국의 주소업무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인다.
- 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는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강원도 삼척시에서 중앙·지자체·전문기관이 참여하는 ‘2023년 주소정책 성과공유 공동연수’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공동연수는 17개 시도, 한국국토정보공사, 주소지능정보전문가포럼, 주소기반산업협회 등 전국의 주소업무 담당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주소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2024년 업무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- 14일(목)에는 제도개선, 주소정보관리시스템, 주소운영, 주소지능정보, 한국형(K) 주소 해외 진출 등 주소정책 분야별 연구와 추진성과를 공유한다.

- 행정안전부는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컨설팅 사례로 ‘탄자니아 주소체계 현대화 컨설팅’ 결과를 발표하고, 탄자니아 주소체계 현황 분석 및 향후 한국형 주소체계를 도입할 마스터플랜 수립 등 제안내용을 설명한다. 또한, 올해 11월 ‘2023 세계주소콘퍼런스’에서 체결한 ‘한-탄자니아, 한-에티오피아’ 간 주소체계 현대화 업무협약 후속 계획도 공유할 계획이다.
 - 한국법제연구원은 주소정보 품질인증, 표준화, 전문인력 양성, 주소정보 산업 진흥 전문기관 지정 등 주소기반의 미래산업 육성 진흥에 대한 세부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정책연구(‘23.5.~’24.1.) 결과를 발표한다.
 - 주소기반산업협회는 사람·차량·로봇 등 이동체별 출입구 안내를 위해 건물 등 주 출입구 외에 주차장·후문 등 여러 출입구 정보를 확대 구축한 성과를 공유한다.
- 아울러, 14일(목)에는 2023년 주소정책 추진 우수기관(20개)과 개인(47명)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될 예정이다.
- 광역부문 우수기관은 ▲ 강원특별자치도(최우수, 5천만원)와 ▲ 대구광역시(우수, 3천만원)가, 기초부문 우수기관은 ▲부산 서구·경남 거제시·충남 예산군(최우수, 3천만원) 등이 수상한다.
 - 주소정보시설의 유지관리 등 다수의 현장업무와 주소기반 드론·자율주행로봇 배송, 실내 내비게이션 등 주소정보 산업지원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기업과 개인에게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.
- 15일(금)에는 보다 효과적인 주소정책 업무추진 방향 설정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수립한 2024년 주소정책 업무계획(안)을 공유하고 지자체·전문기관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계획을 논의한다.
-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민간기업에서 요구하는 주소정보데이터를 생성·관리·유통하기 위해 구축 중인 차세대 주소정보관리시스템 1차 사업과 향후계획을 설명하고,
 -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고가도로·지하도로·실내이동경로 등 주소체계 고도화에 대한 계획 등을 발표하는 등 각 기관의 향후 사업계획도 공유될 예정이다.

-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“올 한해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사물주소 등 신규 주소정보를 활용한 소방·경찰 긴급신고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” 며,
- “주소정보가 미래사회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들이 원하는 다양한 주소정보와 산업 모델을 적극 개발 보급해 나가겠다” 라고 말했다.

담당부서	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	책임자	과 장	박광섭 (044-205-3551)
		담당자	사무관	신윤성 (044-205-3555)



□ **행사 개요**

- (일시·장소) '23.12.14.(목) ~ 12.15.(금), 강원 삼척시
- (참석대상) 총 300여명(행안부, 지자체, 전문기관, 표창 수상자 등)
- (행사주제) '23년 주소정책 성과 공유 및 업무유공자에 대한 시상, '24년 주소정책 업무추진 방향 공유

□ **주요 내용**

① 시·도 과장 회의

- (내용) '24년 시·도 협조사항 전달 및 건의사항 청취

② '23년 주소정책 추진 우수기관 및 유공자 시상

- (대상) **자치단체** 최우수 4개 기관, 우수 16개 기관, **공무원 및 민간(개인·단체)** 47명
- ※ 20개 단체에 특별교부세(5억원) 교부 예정
- (기념촬영) 시상 후 단체사진, 전체 시상 종료 후 개별 촬영

③ '23년 주소정책 성과 공유

분 야	공유 사항
제도개선	주소정보 산업활성화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연구 결과
주소정보 관리시스템	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(1차) 구축 및 KAIS 유지관리 결과
주소운영	주소정보기본도 갱신 및 정비, 입체주소 및 내부도로 구축, 대규모 판매시설, 사물주소 활용 결과
주소지능정보	주소지식그래프 구축, 도로구간 단위 시각화 연구 결과 이동·장소지능정보 '23년도 추진 성과 등
K-주소 해외진출	탄자니아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 컨설팅 결과 주소표준 제정을 위한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 결과

④ '24년 주소정책 업무추진 계획(행안부)

⑤ '24년 주소정책 위탁사업 추진계획 보고

※ 한국국토정보공사, 한국지역정보개발원, 주소기반산업협회